■ 전국체전 광주·전남 성과와 과제

육상·양궁 등 기록종목 대약진
우수선수 유출 방지대책 세워야

광주와 전남이 제 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각 8위와 14위로 지난해 보다 한 단계씩 도약하는 선전을 펼쳤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예산 부족등으로 인해 우수선수 유출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광주 기록 풍성…태권도·우슈 등 투기 선전
전남 고등부 종합 5위…역대 최고성적 거둬

광주는 여자 레슬링 메달권 선수들 대부분 광주지역 출신이고 , 전남은 승마 마장마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재홍(경남)이 지난해까지 전남에서 뛰었던 선수다.

이외에도 광주와 전남의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연봉이 맞지 않거나 실업팀이 없어 이적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광주=광주는 이번대회에서 지난해 15위에서 한 단계 올라 선 14위를 기록했다. , 김덕현(조선대)이 육상 세단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광주·전남 분리 이후 첫 대회 MVP에 오르는 등 한국신기록 1개, 대회신기록 9개, 대회타이기록 1개등 예년에 비해 풍성한 신기록을 작성했다.

광주는 축구 남자대학부 조선대가 1회전에서 강호 연세대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고, 태권도(2위), 우슈(3위), 레슬링(3위)등 투기종목에서 각각 선전을 펼쳤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0점 종목이 없이 고른 득점을 획득해 일부 종목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광주는 이번 체전 39개 종목에 출전, 승마, 펜싱, 양궁등에서 기대했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 목표인 13위 달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광주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 대비로 경기력이 저하돼 육상의 박태경, 박평환, 승마 최준상, 양궁 이특영 근대 5종 이춘헌 등이 부진을 보여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전남=마지막 날까지 손에 땀을 쥔 순위 경쟁을 펼쳤던 전남은 지난해 9위에서 한 단계 도약한 8위를 기록했다.

전남도 '무명 궁사' 김재형(순천고)이 양궁 남고에서 깜짝 세계신기록을 작성했고, 한규철(전남연맹)이 수영에서 한국신기록을 기록하는 등 대회신기록 9개의 풍성한 기록잔치를 벌였다.

사이클의 나아름(미용고)은 4관왕에 오르며 한국사이클의 기대주로 떠올랐으며 역시 사이클 여자 일반 유진아(나주시청·동신대)와 수영 여고 이지은(전남제일고)도 역시 3관왕에 올라 전남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외 전남은 육상, 축구, 테니스, 양궁, 사격 등 18개 종목에서 지난해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남은 고등부에서 지난해 종합9위 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올해 메달순위 3위, 종합 5위로 광주·전남 분리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둬 전남의 성적 향상을 뒷받침 했다.

김재형(순천고)은 양궁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했고, 대회신기록도 5개를 쏟아냈으며 나아름과 이지은 정세영, 김지윤등 다관왕은 대부분 고등부에서 작성했다.

이같은 결과는 코치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중점 관리대상 선수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 관리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남도 광주와 더불어 2008년 89회 체전을 대비해 타시·도로 전출한 전남 출신 선수들의 영입이라는 과제를 안게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생활체육대회 오늘 강진서 개막

서울시 등 선수단 4천500여명
총 14개 종목…열전 3일 돌입

80만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과 200만 전남도민들의 최대 화합잔치인 제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25~27일까지 강진군 종합운동장 등 강진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제10회 도민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등 4천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총 14개 종목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펼친다.

이번대회는 총 14개 종목 중 축구와 궁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생활체조등 12개 종목의 정식종목과 씨름과 태권도는 시범종목으로 펼쳐진다. 이중 궁도 게이트볼은 노년부, 축구·배구·테니스·족구는 장년부, 생활체조는 여성부, 육상과 배드민턴· 볼링· 정구· 탁구· 씨름 ·태권도 등은 혼성부로 나눠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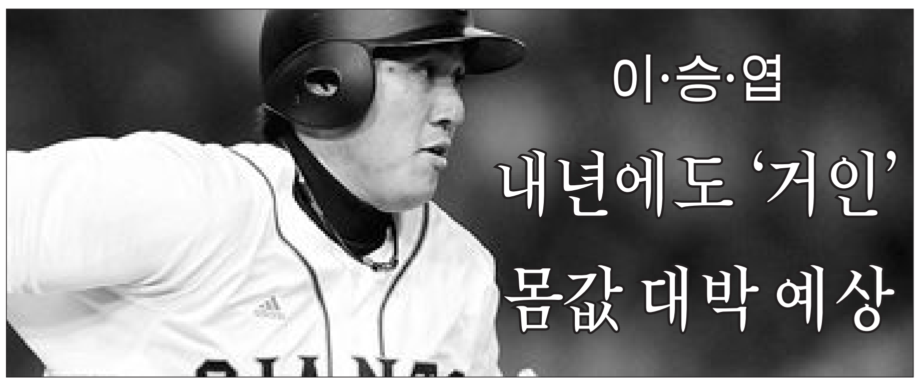
특히 강진군은 야생화전시회와 청자전시 및 시연, 청자골 무료 경로주점등을 운영,이번 대회를 찾은 선수단들에게 강진을 홍보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의 식전 공개행사는 강진 홍보영상 상영과 풍물놀이, 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 고적대 퍼레이드등으로 구성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주서 아시아쇼트트랙선수권 개막

24일 전북 전주실내빙상경기장에서 열린 '2006 아시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예선전에서 선수들이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 호치 "다년계약 가능성"

'거인군단' 4번 타자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잔류 대가로 몸값 대박을 터뜨릴 것인가.

이승엽이 에이전트인 미토 시게유키 변호사를 통해 요미우리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면서 이승엽의 구체적 계약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토 변호사가 계약 대리인으로 구단과 몸값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이승엽의 몸값은 올해 연봉 1억6천만엔(한화 12억9천만원)에서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

이승엽은 지난 시즌 후 2년 간 뛰었던 롯데 마린스를 떠나 요미우리와 계약금 5천만엔을 포함해 총 2억1천만엔에 1년 계약했다.

요미우리계열 스포츠전문 일간지 '스포츠호치'는 24일 이승엽의 재계약 사실을 전하며 연봉 1억6천만엔에서 대폭 상승한 '다년계약'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요다케 히데토시 구단 대표도 요미우리 부동의 4번 타자로 임무를 100% 수행한 이승엽을 높게 평가한 뒤 "(재계약 결정으로) 산 하나를 넘었다. 이승엽이 계속 요미우리에 남았으면 좋겠다"며 다년 계약을 희망했다. 이승엽이 올 시즌 막판 타이론 우즈(주니치·47홈런)에게 추월을 당해 센트럴리그 홈런왕을 놓쳤지만 41개의 홈런 등 타율 0.323, 108타점, 101득점의 좋은 성적으로 맹활약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 중계

25일(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08 : 50·Xports), (09 : 10·MBC)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삼성-한화〉(17 : 50·KBS1)

▲일본 프로야구 일본시리즈 4차전〈니혼햄-주니치〉(17 : 55·SBS스포츠)

▲프로농구〈삼성-KCC〉(18 : 50·Xports)

▲K-리그〈서울-성남〉(20 : 00·MBC ESPN)

26일(목)

▲06/07 칼링컵 축구〈리버풀-레딩〉(03 : 50·KBS SKY SPORTS)

권윤민 등 신인 7명 KIA와 입단 계약

'새끼 호랑이들, 'V10' 힘 보탠다'

KIA 타이거스는 24일 미국 마이너리그 출신 포수인 권윤민(27)과 계약금 8천만원, 연봉 2천만원에 도장을 찍는 등 신인 7명과 입단 계약을 마쳤다.

주전 포수 김상훈의 백업요원으로 기대받고 있는 권유민은 미국에서 배운 노하우와 함께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강점이다.

하지만 포수는 포지션의 특성상 투수 리드 및 상대 타자에 대한 분석 등 야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감각이 요구되는데 권유민의 경우 국내 프로야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KIA는 또 내야수 김연훈(22·성균관대)과 외야수 이호신(22·경희대), 성민규(24·홍익대), 투수 이인철(22·고려대)과도 각각 계약금 1억원, 연봉 2천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특히 180cm, 70kg의 체격을 지닌 김연훈은 짧은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 내는 정교한 타격과 안정된 수비가 장점으로 차세대 KIA타선을 이끌 유망주다.

이외에 2차 8번 박윤식(22·인하대·외야수)과 계약금 2천만원, 연봉 2천만원에, 2003년 2차 7번 조동현(22·한양대·내야수)과는 계약금 3천만원, 연봉 2천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앞서 지난 7월 투수 오준형(22·인하대), 양현종(18·동성고), 내야수 김주현(18·덕수정보고)과 계약한 KIA는 이로써 내년 신인 10명과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